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데이터 품질 관리 부문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컨퍼런스중 하나인 2005 DAMA 컨퍼런스가 지난 달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대, 그 전략과 성공'이라는 주제로 열려 선진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최신 동향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글 박재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사업전략실장

지난달 22일부터 닷새 동안 '데이터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대, 그 전략과 성공'이라는 주제로 2005 DAMA(DAta MAnagement)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인텔이나 모토로라, 쉘, 나이키, 지멘스 등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 경험한 데이터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과 개선 전략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는 사실이다. 컨퍼런스의 많은 세션들을 통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비즈니스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더구나 근래 들어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기업의 자산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데 참가자들 모두 공감하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적시에 마케팅에서 활용(time to market)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데이터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필자는 요즘 글로벌 기업들이 '전사적인 데이터 관리'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데이터 문제는 과거에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라는 속도 경쟁을 지나 이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 부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요즘도 많은 CEO들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쓸만한 정보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들과 정보통신기업이 주축이 되어 몇 년 전부터 DW(Data Warehousing)나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보유의 데이터를 지식화 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데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얼마전 <월간 CE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10년간 발생된 데이터는 그 이전 5,000여년간 발생된 데이터 양과 비등하고, 2004년의 데이터 양은 1999년의 데이터 발생량의 30배에 이룬다고 한다. 이처럼 매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시시각각 늘어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분석·통합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컨퍼런스 일부 세션에서 발표된 모토로라나 인텔, 영국 국방성, 캐나다은행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화가 기업의 성쇠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기업의 지식 창출이나 활용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업무로 부상했다.

즉, 수많은 데이터들을 수집·가공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내는 과정이 바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히 데이터간에 물리적이거나 전자적인 연계를 통해 데이터의 통



합·분석이 더욱 쉽게 이뤄지고 있다.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이 구조화된 데이터의 통합이나 실시간 분석뿐만 아니라 비구조화 된 데이터 처리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이 기간간 데이터 통합 또한 향상된 정보기술 덕분에 매우 쉽게 처리되고 있다. 특히 DW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Inmon Data Systems의 빌 인몬 사장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비구조적인 데이터'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비구조적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을 강조한 것도 바로 정보 기술 발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데이터 관리의 정보 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기술의 성장·발전은 데이터 처리의 대용량화와 초고속화, 다분석화, 멀티미디어화 등을 촉진해 정보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통합·구조화된 데이터가 과연 고품질의 데이터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다. 아직까지 우리는 데이터 품질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품질로 인한 데이터 문제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이러한 저품질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IBM에 합병된 PwC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0여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잘못된 데이터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5%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은 데이터 품질을 비롯한 관리 부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기업의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 자체의 품질 문제는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복잡하게 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Informatica Impact 사의 래리 잉글리시(Larry English) 대표



가 '데이터 정의와 모델에서의 품질 설계'라는 세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품질 데이터는 일반 사용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활용 기반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보다 전사적 차원에서 데이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점점 복잡해지는 환경 변화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확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전사적 데이터 구축과 관리를 위한 ISP를 수립하고, 중장기 전략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통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요구된다. 미래의 기업 환경을 미리 예측해 이를 토대로 전략적인 자원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활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